

교육 강화해 참여 끌어낼 터 화합 바탕으로 발전 이끈다

원용중 총무원장 법륜 스님 **올 중무계획·주요사업** 본원중 총무원장 대화 스님



“우리 종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종도들이 확고한 종단관과 애종심을 갖고 있을 때야 가능한 것이요. 따라서 종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종단 발전과 활성화를 꾀해 나갈 것입니다.”

원용중은 창종 24주년을 맞아 올해를 종단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간다. 원용중 총무원장 법륜 스님은 이 가운데 종도교육 강화를 총무원의 중점 계획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중앙연수교육 실시, 비구·비구니계 단일계단 설치, 중앙비구니회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법륜 스님은 사회복지활동 확대와 포교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개별 사찰

중앙연수교육 실시 비구니회 활성화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복지활동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종단 차원의 복지사업도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도소 재소자와 군장병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포교사업들을 전개해 나간다.

“그동안 종단의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밖으로 이웃으로 눈을 돌려야 종단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가 전해질 수 있도록 나서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뜻이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륜 스님은 총무원과 지역교구, 개별 사찰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총무원내 문화부, 복지부 신설을 포함한 조직 및 인사 개편을 3월중 단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을 비롯해 불자들을 위한 국제보살계 수계법회, 호국영령 위령 수륙재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일기원 방생재 개최 연내 새 종정 추대

“본원중은 89년 창종 이후 소속 사찰이 뜻을 함께 나누면서 종단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모든 종도들이 화합하는 가운데 종단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원중 총무원장 대화 스님(서울 연화정 사)은 ‘화합 속의 종단발전’을 올해 중무지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화 스님은 규모와 종세가 약한 종단의 운영상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그 요인으로 빈약한 재정과 참여 부족을 들었다. “종단운영상 어려움은 빈약한 재정에서 출발합니다. 재정이 없으니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없는 것이요. 또 종도들이 대부분 독살이 사찰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무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스님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종단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종단의 재정수입은 각 사찰에서 납부하는 분담금과 대형법회에서의 수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수입의 구조가 빨리 개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단도 수익사업을 해야 하고 재정의 일정부분을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 스님은 올해 계획 중인 남북 평화통일 기원 방생 및 수륙대제, 연화정사 사리탑 제막식, 종단 납골당 불사를 통해 종도들의 화합과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또 지난해 임정한 종정 대화 스님의 뒤를 이을 새 종정을 연내 추대해 종단의 중심을 확고히 잡아나갈 방침이다.

“헌신적으로 종단을 이끌어 간다면 종도들간 신뢰가 쌓이게 되고 동참의식도 길러 지리라 봅니다. 올해 새로 추대할 종정 스님을 중심으로 화합종단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총지종 49일 불공 입재

총지종(총리원장 법륜)은 2월 20일 서울 총지사들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49일 불공 입재식을 열고 49일간의 정진을 시작했다. 수성 종령은 총지사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나와 내 가족, 나아가 이웃을 위한 정진으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전통 불교에서 행하는 안거를 변형한 밀교수행인 49일 불공에는 모든 승직자와 재가불자들이 동참한다. 이 기간에는 재난소멸, 소원성취, 영가천도, 자녀 잘되기 등을 진언연송을 통해 서원한다.



위덕대 손제석 명예총장 추대

위덕대는 2월 17일 손제석 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했다. 대학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추대식에서 손제석 명예총장은 “위덕대는 한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며 “새로 취임하는 총장을 중심으로 지적경비의 참된 인재 기르는 명문 종합대학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손 명예총장은 학교발전에 써달라며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위덕대는 입학식이 열리는 3월 2일 이전 신입총장을 추대할 계획이다.

종단소식

니르바나 봉사자 교육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윤덕)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펼칠 니르바나 자원봉사자 교육을 2월 25일부터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25~27일 인천 연화사를 시작으로 울산·경주 3월 17~19일, 대전·청주 4월 20~22일, 서울·성남 6월 9~11일, 여수 8월 11~13일, 진주 10월 27~29일, 포항 7월 13~15일, 창원·마산 10월 6~8일 각각 열린다. (02)575-3467

황석영 선생 초청강연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안)은 3월 5일 오후 6시 서울 월곡동 종인원내 무진실법전에서 황석

영 선생 특별 초청강연을 연다. 복지법인 설립 6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강연은 산하시설 종사자와 후원인, 자원봉사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 이어 소설 <심청> 사진 회도 열린다. (02)942-0144-5

올 사업계획안 심의

총화종 제54회 중앙총회가 3월 2일 오전 11시 남양주 수진사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4년 사업계획안 심의, 중앙기관장 인준, 중국 관음성지 순례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어 중앙기관장 및 지역교구 총무원장을 비롯해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열릴 예정이다. (031)592-8891

미륵종 종정 연화 대종사 취임법회

29일 연양 중앙교육원서



미륵종 제3회 종정 연화(蓮華·사진) 대종사 취임법회가 2월 29일 오후 2시 연양 중앙교육원에서 봉행된다.

연화 대종사는 1958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이래 송광사 강원을 수료하고 해인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부산 김룡사 주지, 양산 대인사 주지, 김해

경찰서 경승실장, 조동종 중앙선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인사 조실로 있다.

미륵종은 이날 법회의 원만한 준비와 진행을 위해 2월 10일 봉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총무원장 송정 스님을 추대했다. 집행위원장은 사무총장 보성 스님을, 위원에는 혜경·묘각·마하·영운·혜종·해산·법일·동성 스님 등을 위촉했다.

한편 미륵종은 10일 중앙기관장 및 총무원 부장, 교구 총무원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원로위원장에 정업 스님, 감사위원장에 영각 스님을 선임했다. 총무원 교무부장에는 혜경, 재무부장 묘각, 호법부장 마하, 사회부장 영운, 교육부장 법일, 규정부장 혜종, 포교부장 해산 스님을 임명했다. 박봉영 기자

회당학원 새해예산 387억원 확정

진각종 회당학원의 새해 예산이 387억4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회당학원(이사장 진담)은 2월 16일 제32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04년도 법인사무처 및 산하 학교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 지난해보다 30억6천3백만원이 감소한 387억4천만 원을 의결했다.

회당학원의 올해 예산은 법인사무처 12억8천9백만원, 위덕대 206억5천1백만원, 심인중 38억3천2백만원, 심인고 47억1백만원, 진선여중 37억6천2백만원, 진선여고 40억7천9백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법인사무처와 진선여중은 교직원 증가, 신규사업 확대 등으로 각각 2억6천5백만원과 2억8천7백만원 증가했지만, 나머지 학교는 인건비정정을 편성했다.

예산 심의에 이어 임기가 만료된 감사 재선 출에서는 최충용, 손덕호, 전문태 감사를 유인시켰다. 또 김항지(특수교육학) 씨를 위덕대 교육학부 교수로, 방선영(영어·유체재) 씨를 진선여고·진선여중 교사로 각각 신규 채용했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동안거 해제

천태종은 1월 1일부터 총본산 구인사에서 진행돼 온 승려 동안거를 2월 24일 해제했다. 결제에 든 종단 소속 5백여 스님들은 종정 도용 스님의 지도 아래 55일간 용맹정진을 해왔다. 도용 스님은 해제법어를 통해 “자리의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3월 8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 일 시 : 2004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음, 2월 18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3월 8일 (음, 2월 1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4월 19일 (음, 3월 1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회당 별도
- ※ 위폐비, 아기웃 : 무료
- 존 비 들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육을 합니다. (베제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시틀 시는게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에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태중(낙태, 유산) 지장보살님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온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